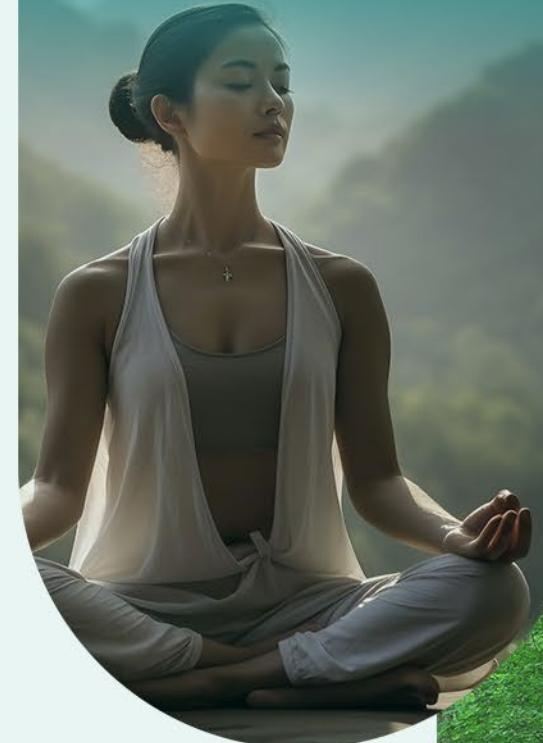


WEEK 05

여성학



학습목표

- I. 여성성기와 남성과 다른 여성의 신체구조와 정신구조에 대하여 알아본다

학습목차

- I. 여성학
- II. 해부학(1)
- III. 해부학(2)



1. 여성학

1) 여성의 심리

1) 여성의 심리

- ▶ 여성은 '모성본능' 때문에 자신이 낳을 아이가 '안전'하게 클 수 있어야 하므로, 여성이 추구하는 인생최고의 가치관은 <안정>이다
- ▶ 그래서 현대에서는, 돈이 곧 안정과 직결되니, 여성은 결국 남성의 <능력>에 본능적으로 끌릴 수밖에 없다.
- ▶ 또한 '남성의 경우'에는, 자신의 후손이, 멋진 유전자를 계승 받게 하고 싶은 본능에 끌려, '유전적으로 우월한 여성'에게 더 관심을 갖게 된다.
- ▶ 이렇게 여성과 남성의 기본적인 성향은 확연히 다르다.
- ▶ 그러니 서로를 잘 모를 수밖에 없고, 서로를 모른다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는 것은, 상대방을 이해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만 내세우는 것이 문제다.

1) 여성의 심리

- ▶ 예를 들어 남녀 간의 '투자행태의 선호의 차이'를 비교해보면
- ▶ 여성은 단기 수익 자체에 목 메이지 않고, 장기적인 성과에 집중하고, 최종 결정까지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결과적으로 남성에 비해 좀 더 '수용적'이다.
- ▶ 여성의 경우에는, '안정적이며 꾸준한 투자 스타일'을 보이는 반면, 남성은, 손실을 볼때 보더라도, 일단 지금 당장 더 많은 수익을 내는 쪽에, 관심이 많다.
- ▶ 결론적으로 여성은 위험을 싫어한다는 것이고, 이런 선명한 차이는, '아이를 낳고 보호받아야 한다는 여성의 본능으로부터 출발'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 ▶ 그러므로 튼튼한 둥지가 보장되지 않으면,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이 '여성들의 생각'이다.

1) 여성의 심리

'여성의 질투'

- ▶ 여성은 '꽃'으로, 남성은 '나비'로 비유한다.
- ▶ 꽃은 돌아다니지 못하지만, 나비는 돌아다닌다.
- ▶ 그래서 여성은 '정적', 남성은 '동적'으로 표현한다.
- ▶ '정적'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여성들은 독특한 특징을 갖게 되는데, 자신의 옆에 자신보다 향기가 짙은 꽃이 있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 ▶ 아무튼 여러 꽃들이 있어도, 나비는 그 중에서 가장 화려한 꽃 위에 앉고 싶어 한다는 것을, 꽃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1) 여성의 심리

'이별'

- ▶ 남성과 여성의 처음에 이별을 하게 되면, 남자는 첫날부터 후련함을 느끼게 되는 반면, 여성은 무척 속상한 마음을 갖게 되는데, 여성은 시간이 갈수록 그 남자의 나쁜 면만을 부각시키면서, 곱씹게 되고 점차 그 남자를 싫어하는 감정을 스스로 만들게 되는 반면, 남자는 오히려 여성과의 좋았던 점만을 기억하게 되며, 시간이 갈수록 여성에 대한 향수가 커지는것이 '일반적인 속성'이다.
- ▶ '그녀와 헤어진 지 오래되었으니 다시 만나면 그녀도 너처럼 반가와 하겠지?'라고 생각하는것은 '남성의 속성'이며, 하지만, 여성의 입장은반대로 조금 다르다는것이 일반적인 속성이다.
- ▶ 그래서 남녀가 싸우게 되면 냉각기간을 두자고 하는데, <냉각기간>은 갖지 않는것이 좋다. 왜냐하면 냉각기간을 갖으면 남성과 달리 여성은 마음이 멀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 여성의 심리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육감'이 뛰어나다

- ▶ 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해 외부에서 일을 하므로, 그저 '이성적'이면 되지만, 안에서 기다리는 여성은, '육감과 감성'이 발달한다.
- ▶ 여성은 남성의 말 한마디, 혹은 작은 몸짓 하나로부터, 남성이 마음의 변화를 탐지하곤 한다.
- ▶ 여성성이 강할수록, '남성을 믿지 않는 경향'이 뚜렷해지는데, 더욱이 남성이 여성에게 어떤 실망감을 준 적이 있다면, 여성은 그것을 더욱 잘 잊지 못한다.

1) 여성의 심리

'여성은 '정적'이기 때문에 돋보이고 싶어하는 특징'이 있다

: 그래서 화가 나면 마음에 벽을 쌓는다.

- ◉ ex) 만약 네 여친이 화가 났다면, 만사 제쳐 두고 그 화부터 풀어줘야 만 한다. 이걸 잘해야 하는데, 여성의 이별에 대해 신중하지만, 일단 마음을 먹으면 무서운 속도로 마음의 벽을 쌓는다. 이것은 일종의 여성의 '자기 보호시스템'이다
- ◉ 여성은 신체적으로나 감성적으로 '소극적이고 안정적인' 것을 추구한다: 미지에 세계에 대한 동경이, 남성보다 더 크다
- ◉ 실제로 '해외 여행'을 가보면,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모여서 여행을 다니는 빈도수가 더 많은 것을 볼수 있다.

1) 여성의 심리

- ▶ '화가 났을 때 남성과 여성은 해결 방법'이 전혀 다른데,
- ▶ 남성이 화가 났을 때, 납득할 정도로 상황설명을 잘 해주고, 그것이 Reasonable 하다면 화가 풀리는 반면, 여성은 상황설명을 장황하게 하면, 오히려 짜증을 더 낸다.
- ▶ 화가 난 '이유' 보다는 일단 그녀가 화가 난 것 '자체'가 더 중요한 경우가 많다.

1) 여성의 심리

- 여성들은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고 속삭이는데 익숙해 있다: <수다>를 즐긴다.
- 그러다 보니, 어느 조직이든 새로운 정보는, 남성보다 여성들에 의해 좀더 확산되는 편이다.
- 그래서, 잘되기 위해서는, 가급적 여성 취향에 맞추어 최적화시키는 것이 좋다.

1) 여성의 심리

- ▶ 여성들은 본능적으로 '안정과 청결'을 중시한다
- ▶ 여성은 대하거나 호감을 얻고자 할 때, 사치할 필요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여성들이 선호하는 깨끗하고 안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 ▶ 술을 많이 먹더라도, 반드시 씻고 자고, 향수도 사용하는 것이 좋다. 편안한 옷보다는, 정갈하고 깔끔한 이미지의 옷을 좋아한다.

1) 여성의 심리

- ▶ 여성들의 특징 중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유대감>이다
- ▶ 여성들의 경우, ‘유대감을 통해 본능적으로 무척 강한 결속력’을 갖는다: 그래서 여성들을 상대할 때, 내가 <그녀의 편>이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일이 중요 하다. 이 부분은 특히 ‘남성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다.
- ▶ 예를 들어, 자신의 여자가 누군가에게 욕을 하면: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같이 욕을 해주는 것이 좋다. 그것은 내가 <그녀의 편>이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인데, <유대감>의 표현이다.

1) 여성의 심리

- ▶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결함에 대한 인식>이 부족 한 경우가 있다
- ▶ 여성들은, 남자에 비해 자신의 결함을 있어도 숨기려 하는 경향이 있고, 자신의 결함을 들추어내면 반응하며, 모두가 그런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자신에 대해 '고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남성에 비해)
- ▶ 물론, 누구나 자신의 결점보다는 장점을 본다. 제 잘난 맛에 취해 사는 건, 남성이나 여성이나 마찬가지지만,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그런편이다

1) 여성의 심리

- 과거에 비해 지금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지위상승’으로 ‘남편이나 자식보다 여성 스스로의 삶의 가치정도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과거에 비해 본인만 노력한다면, 남편의 운명에 좌지우지 되지 않을수 있는것이 사회현실이다
- 특히, 여성의 ‘외적 아름다움’은 중요하지만, 절대조건은 아니다. 꽃향기만으로는 벌을 끌어 당길 수 있지만, 오래 머무르게 할 수는 없다.
- 과거에 비해 현대사회는, 여성이 좀 더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차분하게 준비한다면, 여성으로서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자식을 위한 독립적인 안전도 도모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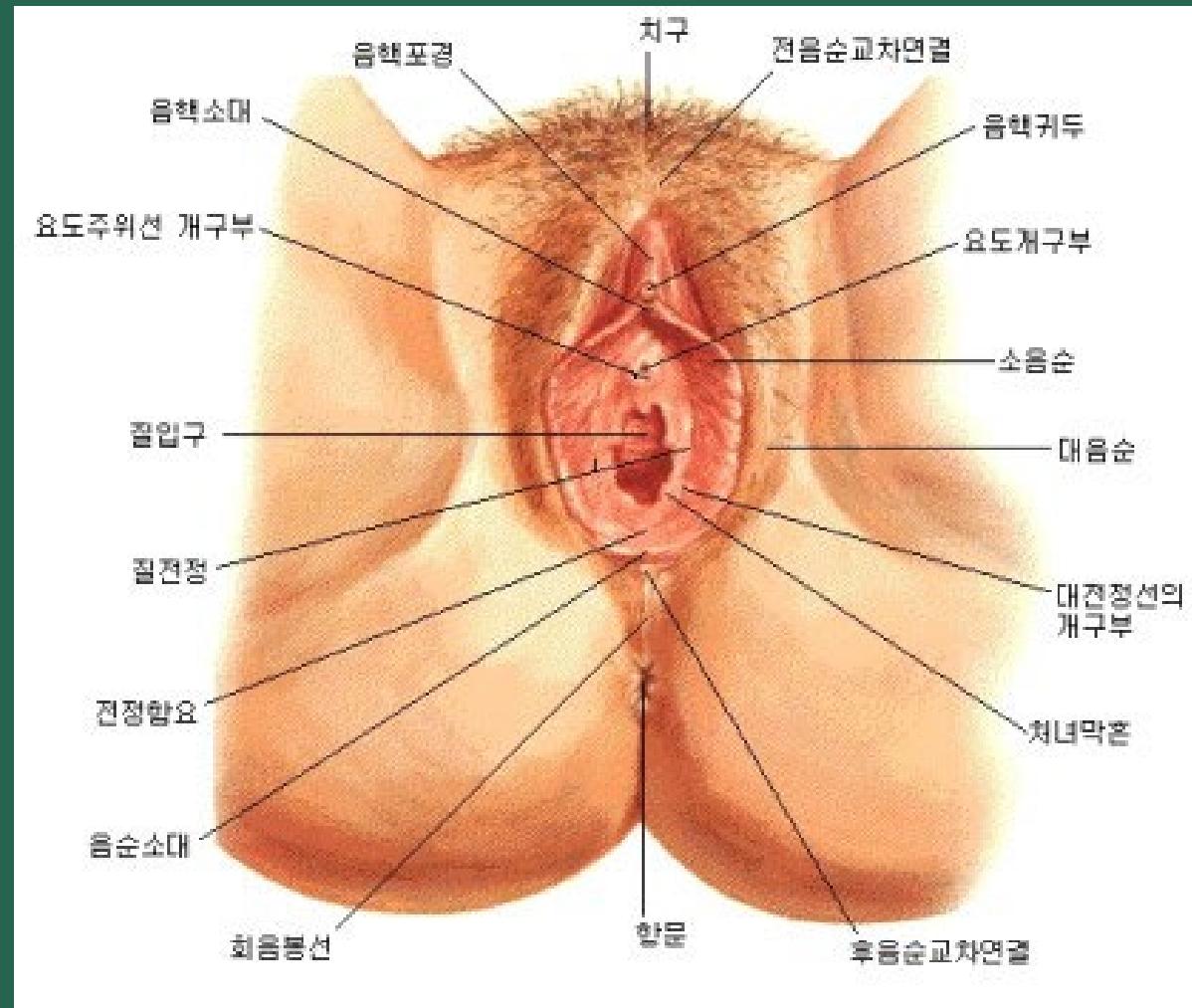
1. 여성학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2. 해부학(1)

- 1) 여성의 해부학
- 2) 여성의 자궁과 난소

1) 여성의 성과 생식계



[출처] <https://www.instiz.net/pt/46555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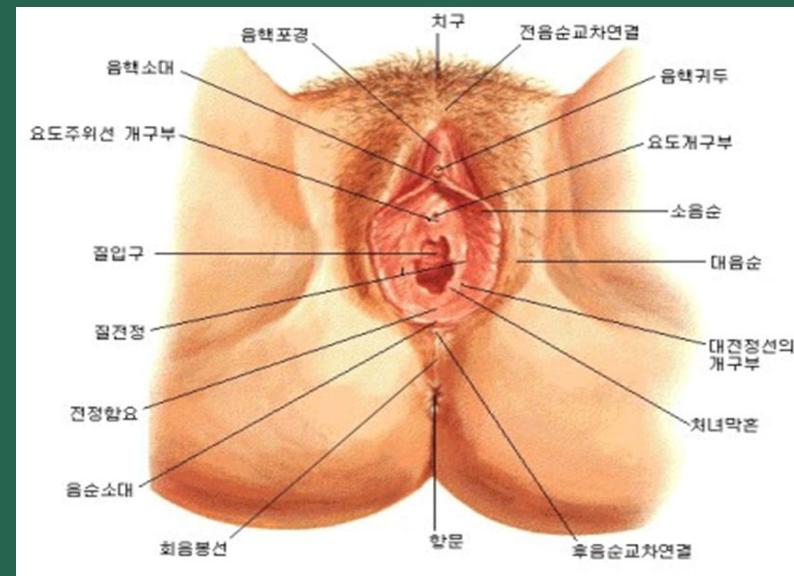
1) 여성의 성과 생식계

치구(Mons pubis)

- ▶ 치골위에 자리잡고 있으며, 대음순으로 이어진다
- ▶ 여성외음부에서 가장 윗부분(일명 '사랑의 언덕' 또는 '비너스언덕'이라고 불린다)
- ▶ 지방층으로 이루어졌으며, 사춘기이후에는 털이난다
-> 성관계시 마찰을 부드럽게 만듦

예민한 말초신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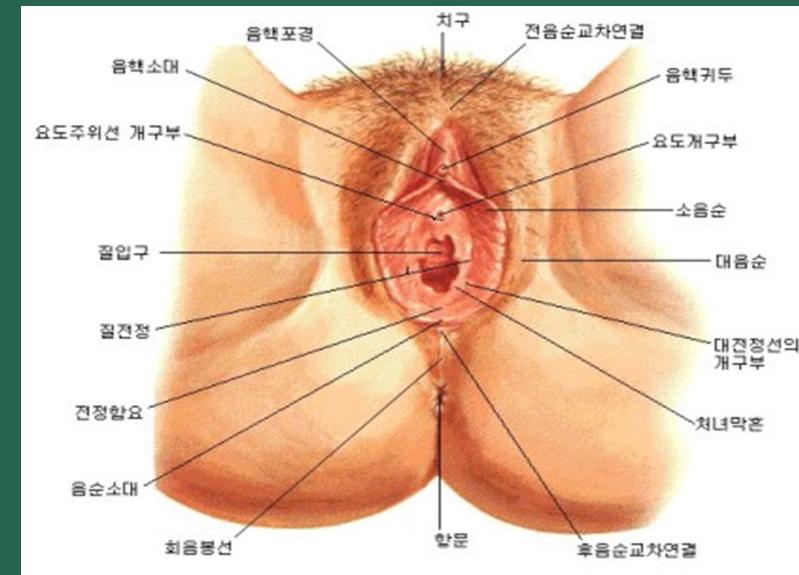
- > 가벼운 접촉이나, 압박감만 있어도 흥분을 느끼게 함



1) 여성의 성과 생식계

회음체(perineal bod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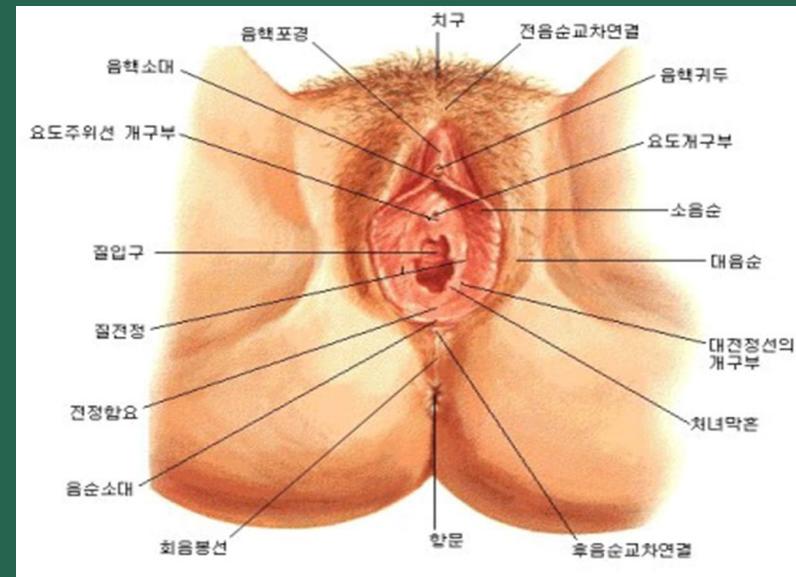
- ▶ 회음(會陰, Perineum)은 '인간의 두 넓적다리사이의 부위'로, 남자는 '음낭과 항문사이', 여자는 '질하단과 항문 사이'를 말한다. 성인의 경우 이 부위에 '음모'가 나있다. '성감대'이며 이 부위에 주요 동맥 지나간다.
- ▶ 질의 정중면 중간 근처에, 질의 근육들이 모이는 섬유 근육 덩어리. 이곳에서 '망울 해면체근', '바깥 항문 조임근', '항문 올림근', '얕은 가로질근'등이 만난다.



1) 여성의 성과 생식계

요도(Ureth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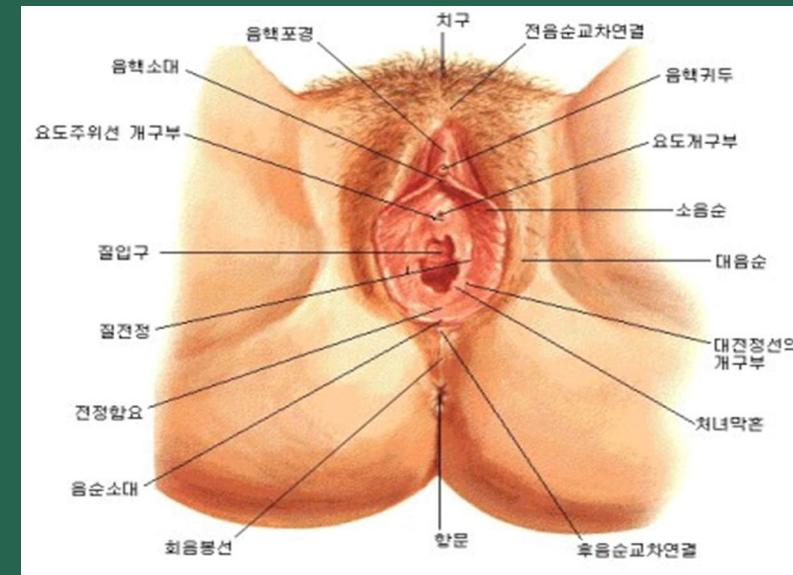
- ▶ 요도는 '3-4cm 길이와 6mm의 직경을 가진 근육관'으로, 내부로부터 (1) 요도상피, (2) 점막하 혈관얼기(vascular plexus), (3) 요도 근육조직으로 구성된다.
- ▶ 요도상피는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받으며, 폐경후에는 상피가 위축되고, 유순도(pliability)가 떨어져서, 요도내압이 감소된다.



1) 여성의 성과 생식계

대음순-(1)

- ▶ 소음순 바깥쪽으로 융기된 피부주름
- ▶ 소음순의 2/3 윗부분을 감싸고 있음
- ▶ 일반적으로 짙은 검은색
-> 사람에 따라 착색의 정도가 다름
- ▶ 사춘기의 '2차성징'의 하나로
뚜렷하게 발육
- ▶ 사춘기 전에는 평평하여, 소음순이
오히려 뚜렷하게 보임



1) 여성의 성과 생식계

대음순-(2)

- ▶ 소음순과 달리 음모가 많음
- ▶ 피하지방 : 성교시 물리적인 충격을 흡수
- ▶ 출산경험 유무에 따라 성교시 융기 정도가 달라짐
 - >출산 이후, 모세혈관발달 : 융기가 2~3배 높아짐
- ▶ 남성의 '음낭'과 동일한 원기에서 발생
 - > 거무스름하게 색소가 침착 되는 정도가 비슷

1) 여성의 성과 생식계

대음순-(3)

▶ 피부선(skin gland): 겨드랑이 밑과 같이, 땀을 분비

- 여기서 나오는 '냄새'는 성별, 연령, 인종이나 민족에 따라, 또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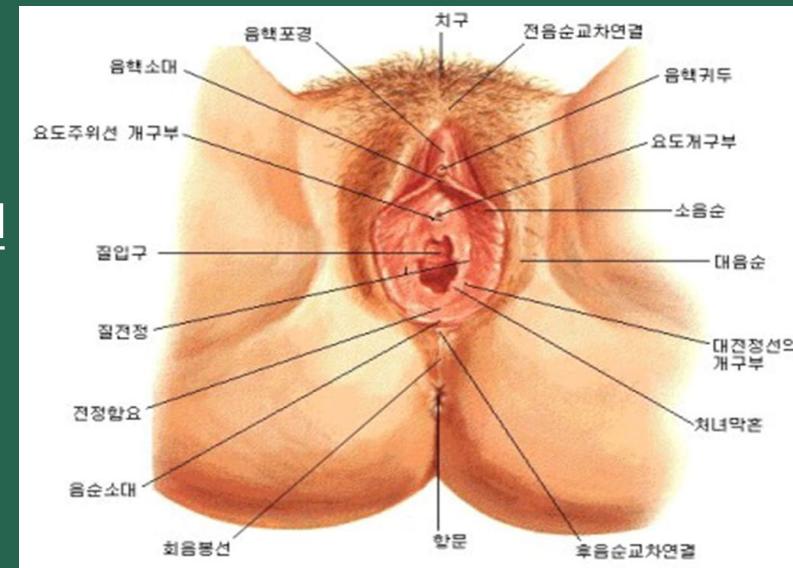
▶ 아포크린선(apocrine gland)

- 음모를 따라 '강력한 여성의 체취'가 풍기는 땀샘
- 내부에 발달되어 있어 '남성의 성욕'을 촉진

1) 여성의 성과 생식계

✓ 소음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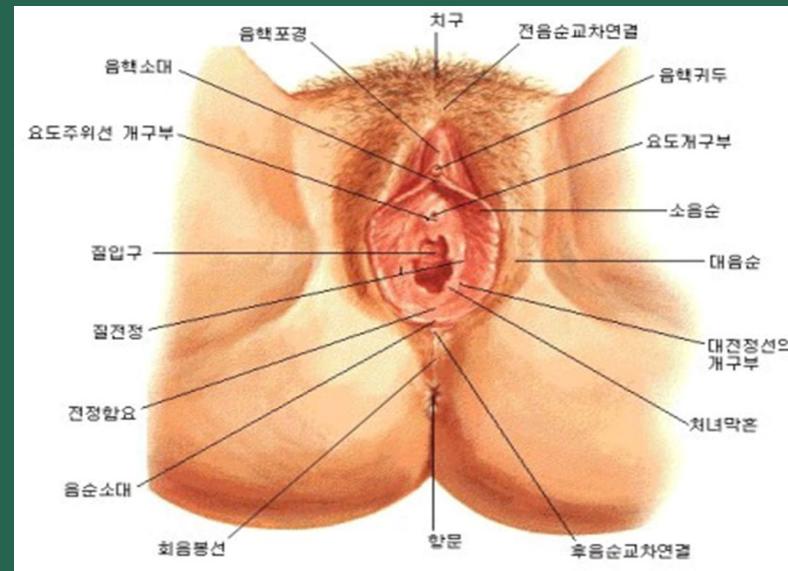
- ▶ 여자의 외부생식기관중 하나이다
- ▶ 질의 앞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작은 점막주름
- ▶ 소음순 위쪽말단 '음핵포피'에서 '바톨린선'까지 달하게 됨
- ▶ 성적자극을 받을 경우 '연한 붉은 색'으로 변함
- ▶ 자극을 받으면, 음핵(Clitoris)이 간접적으로 자극됨
- ▶ 대음순과 달리 '음모'가 없고,
‘신경말단’이 집중
- ‘민감한 성감대’로 성적 자극을 받으면
‘팽창’, 사람에 따라서는 음핵을 직접
자극하는 것 보다 소음순을 자극할 때
오르가즘을 쉽게 느낀다고 함



1) 여성의 성과 생식계

✓ 음핵-(1)

- ▶ 길이: 0.5 ~ 1.5cm
- ▶ 여성의 발기조직
- ▶ 가장 민감한 성감대
- ▶ 실질적인 다른 생리기능은 알려져 있지 않음



1) 여성의 성과 생식계

음핵-(2)

▶ 구성 :

1. 음핵귀두(clitoral glans)
 - 외부에서 관찰가능
 - 두개의 소음순이 만나는 곳에 위치하며 작은 단추모양
2. 음핵체부(corpora cavernosa)
3. 음핵각(crura)

1) 여성의 성과 생식계

음핵-(3)

- ▶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은 0.6-2.5cm 정도의 크기
 - 음핵의 크기와 성적 쾌락의 강도는 무관
- ▶ 성적으로 흥분되면 음핵 포피속으로 숨어버림
 - 음핵(Clitoris) - 그리스어로 '숨어있는 것'
 - 실제로 성교시 성적으로 흥분되기 시작하면 음핵은 점차 음핵포피 속으로 숨어버림

1) 여성의 성과 생식계

음핵-(4)

- ▶ 오로지 쾌감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
- ▶ 음핵의 자극을 선호하는 여성은, 음경의 삽입을 본능적으로 늦추려고 할때도 있음
- ▶ 음경의 전진운동으로는, 음핵을 자극하기 힘들고, 소음순이 받는 압력으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자극됨
- ▶ 음경을 깊이 삽입하고 회전시키면, 소음순에 가해진 움직임이 표피에 전해져, 간접적으로 자극을 받음

1) 여성의 성과 생식계

바톨린선(Batholin's gland)

- ▶ 큰질어귀샘 또는 바톨린선(Bartholin's gland)은 성교시 또는 성적으로 흥분 시에, 질구에 윤활을 위한 점액질을 분비하는 곳이다.
- ▶ 덴마크의 해부학자 '카스파르 바르톨린(Caspar Bartholin)'이 발견했으며, 그의 이름을 따서 바톨린선이라 부르게 되었다. 바톨린선에서 분비되는 액을 질액 또는 애액이라고 한다.
- ▶ 질액은 약산성의 투명한 액체로, 생리적 또는 병리적 원인에 의해 분비되어 나오는 불투명한 분비물인 냉과는 다르다.

1) 여성의 성과 생식계

바톨린선(Batholin's gland)

- ▶ '바톨린선'은 여성의 외음부 양쪽하방에 위치한다.
- ▶ 바톨린선이 세균에 감염되면, 배출관이 막혀서 분비물이 밖으로 흘러나가지 못해, 낭종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것을 '바톨린낭종'이라고 한다.
- ▶ 바톨린낭종은 재발이 심하므로, 증상이 없더라도 수술을 하는것이 원칙이다.
- ▶ 더 진행되어 고름이 생기면 '바톨린농양'이 생기는데, 역시 절개하여 농양을 제거해 준다. (Bartholin's abscess)

2) 여성의 자궁과 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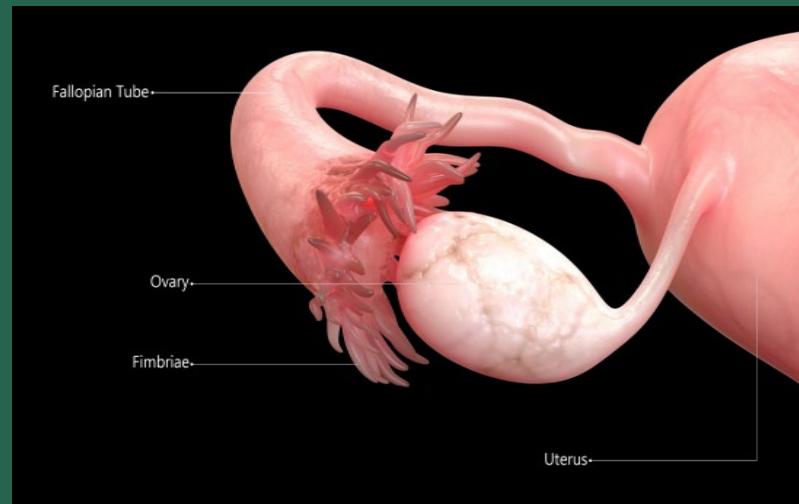


[출처] <http://eknews.net/xe/512239>

2) 여성의 자궁과 난소

난소-(1)

- ▶ 여성의 생식선
- ▶ 난자 생산, 여성호르몬 및 소량의 남성호르몬을 생산
- ▶ 2~2.5cm정도 되는 큰 강낭콩 모양
- ▶ 구성: 난소 수질(중심)+피질(바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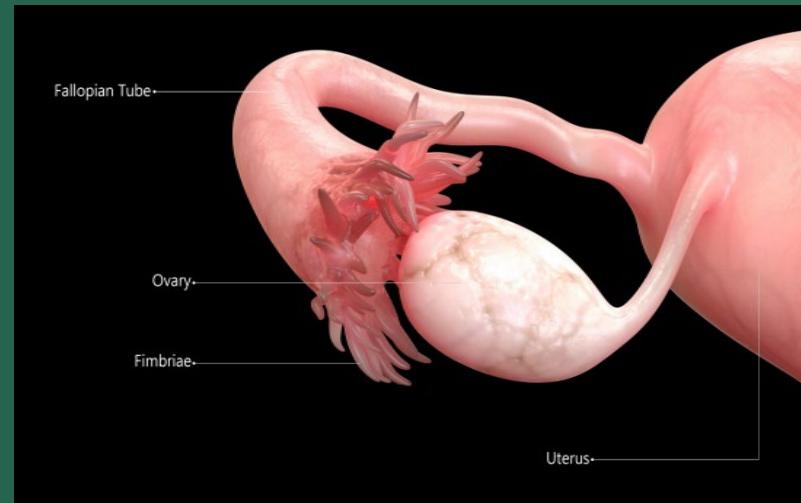
[출처] <https://www.mentalfloss.com/article/560775/facts-about-ovaries>

2) 여성의 자궁과 난소

난소-(2)

▶ 피질은 '난자 형성세포'와 '난포세포'로 구성된 난포로 구성

- 한 달에 한번 꼴로 '성숙난포'에서 배란된 난자가 난관 속으로 들어감
- 배란된 난자가 정자와 만나지 못했을 경우에는 '월경'이 되어 나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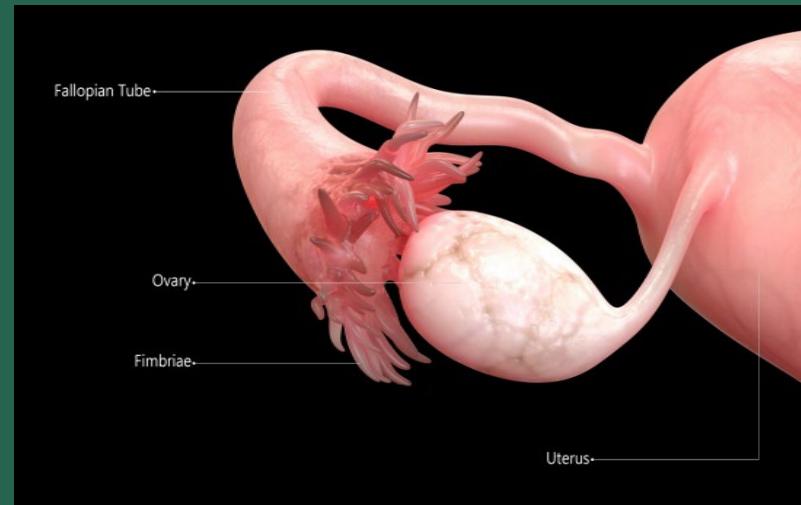
[출처] <https://www.mentalfloss.com/article/560775/facts-about-ovaries>

2) 여성의 자궁과 난소

난소-(3)

▶ 난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 에스트로겐 : 월경전반부 조절(자궁내막을 증식), 지방분포 및 유방발육에 영향
- 프로게스테론 : 월경후반부 조절, 유즙분비 임신시 자궁근육의 발육을 지연시킴
- 안드로겐 : 성행위 능력 증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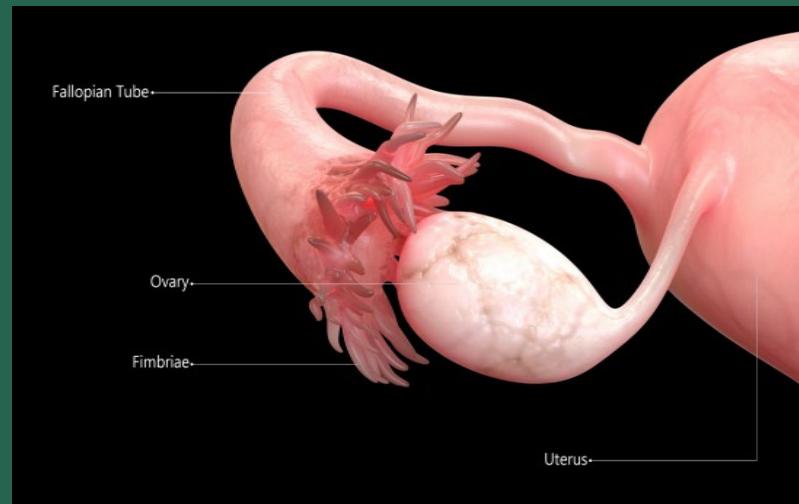
[출처] <https://www.mentalfloss.com/article/560775/facts-about-ovaries>

2) 여성의 자궁과 난소

난소-(4)

▶ 태어날 때 1~2백만개의 미성숙 난자

- 사춘기 부터 한달에 하나 이상의 난자 배란
- 난자의 성숙과 배란은, 폐경기까지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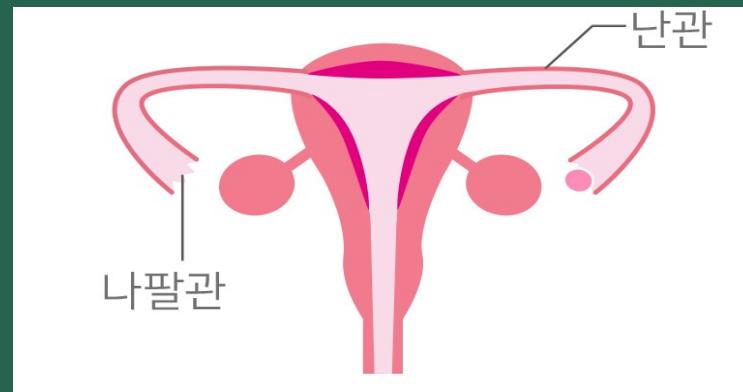


[출처] <https://www.mentalfloss.com/article/560775/facts-about-ovaries>

2) 여성의 자궁과 난소

나팔관-(1)

- ▶ 수란관, 난관, 자궁관이라고도 함
- ▶ 배란된 난자의 사정된 정자가 '수정란'을 만드는 장소(난관팽대부)
- ▶ '수정란'을 자궁으로 수송하는 역할
- ▶ 난관의 구조: (1) 총채부, (2) 누두부, (3) 팽대부, (4) 협부, (5)자궁간질부
 - 기능적으로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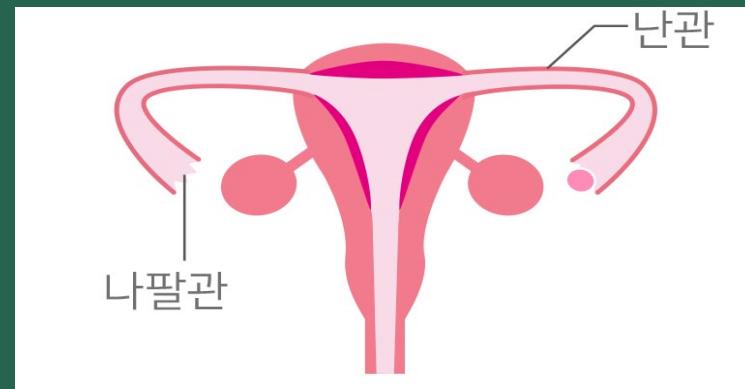
2) 여성의 자궁과 난소

나팔관-(2)

▶ 성교에 의해서, 남성의 정자가 자궁내강을 거쳐 난관으로 들어오게 되면

- (1) 왕성한 난관수축운동, (2) 난관 상피세포의 섬모운동, (3) 정자의 편모운동을 통해
- ‘난관팽대부’까지 유영운동을 하면서 올라가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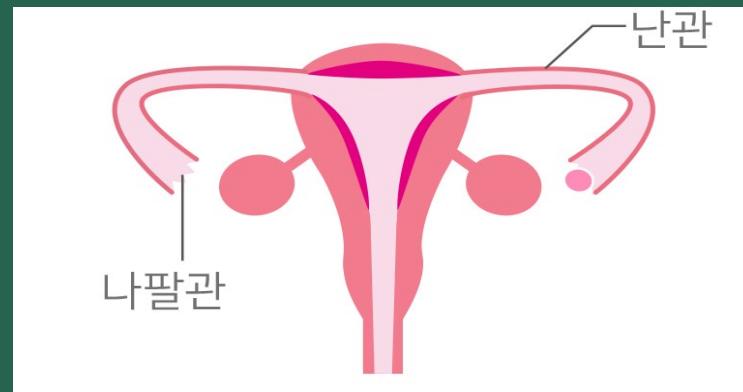
▶ 배란된 난자 역시 ‘배란’을 통해 ‘난관팽대부’까지 이송



2) 여성의 자궁과 난소

나팔관-(3)

- ▶ 즉, 정자와 난자는 서로 정반대방향에서 접근되어 '난관팽대부'에서 결합
- ▶ '섬모운동(난관 상피세포)의 이중 기전'
 - 한 개 난관에서 서로 '반대방향'으로 이동하는 섬모 기능이 동시에, 같은장소에로 일어나는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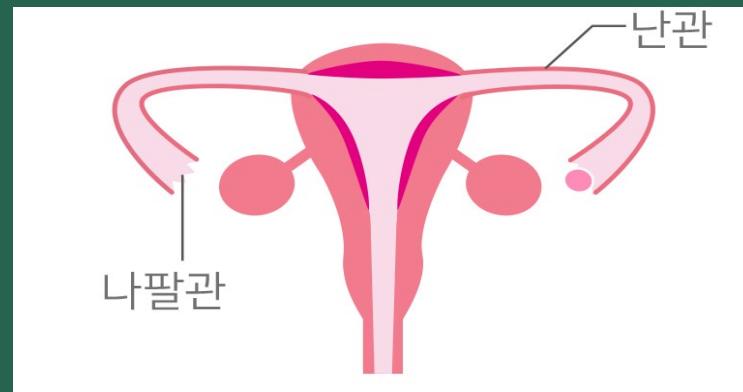


2) 여성의 자궁과 난소

나팔관-(4)

▶ 자궁외임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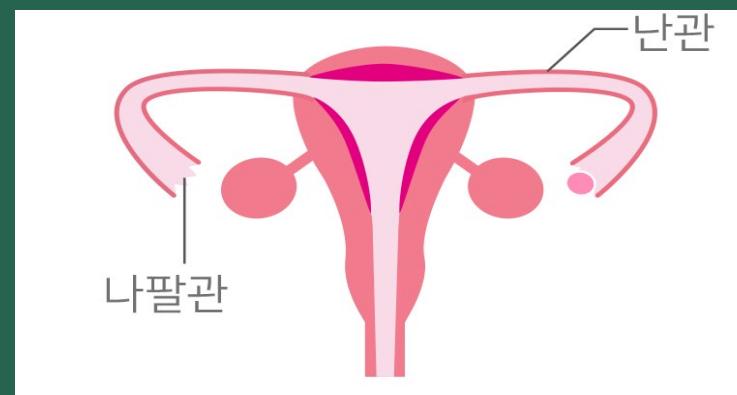
- '배란된 난자'가 난관내로 도입되지 않거나
- '수정된 접합자'가 '자궁내막 이외의 장소'에서 착상되는 경우



2) 여성의 자궁과 난소

나팔관-(5)

- ▶ 난관내에서의 정자수송은 두단계로 동시에 진행되는데,
 - 2단계: ‘고속상’과 ‘저속상’으로 진행
- ▶ 소량의 정자는 성교 후 30분이 되면, 벌써 난관의 3분의 1 상부에 도달 하지만, 대부분의 정자는 그대로 자궁경부에 남음
- ▶ 수정장소: 난관의 3분의 1 상부, 배란후 6-24시간이면 수정되고, 그 이상의 시간이 경과하면 난자가 ‘과성숙’되어 고사됨



2) 여성의 자궁과 난소

나팔관-(6)

▶ 배란후 수정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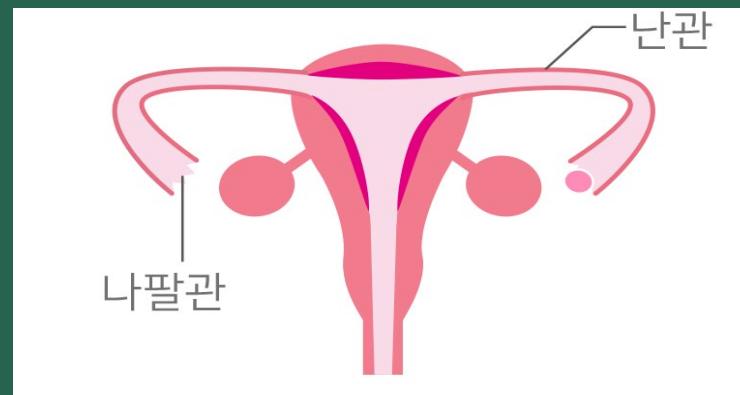
- ‘난할’과정이 시작됨
- 수정란은 3일간 난관 하부로 이동되어 ‘착상’ 됨
→ 착상할 때의 난구를 ‘포배’라고 함

▶ 난관 내의 수정란의 수송을 ‘촉진’시키는 호르몬

- 에스트로겐

▶ 난관 내의 수정란의 수송을 ‘지연’시키는 호르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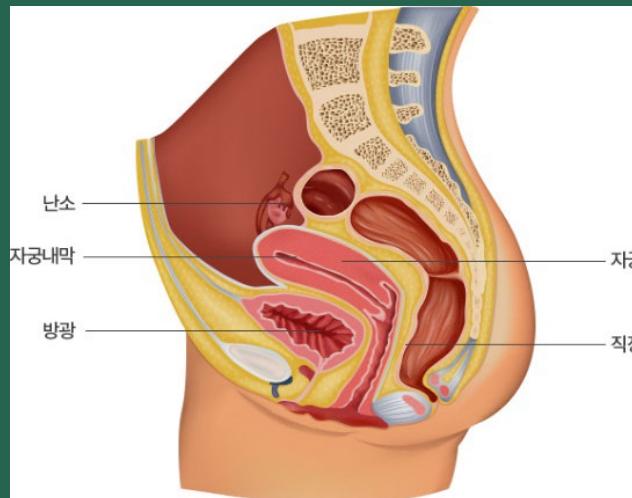
- 프로게스테론



2) 여성의 자궁과 난소

자궁-(1)

- ▶ 포유동물에서 볼 수 있는 '암컷의 생식기관'
- ▶ '수정란'이 착상하여 일정기간동안 발육되는 기관
- ▶ 자궁벽: 외막/근층/내막으로 구분됨
- ▶ '월경 주기'에 따라 '자궁내막'은 큰 조직학적 변동을 주기적으로 겪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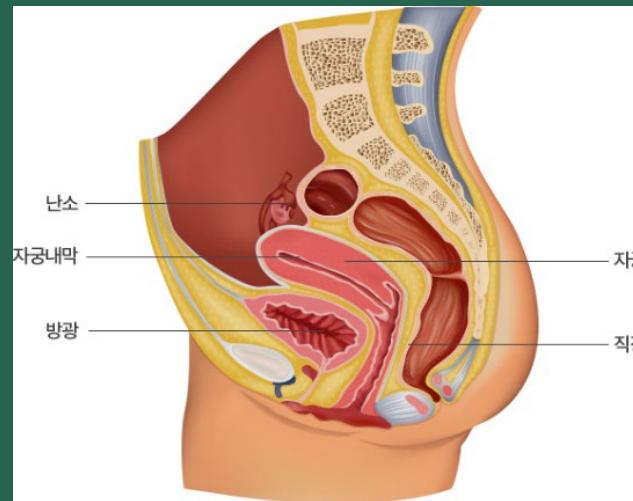
[출처] <http://www.ellemedi.co.kr/sub/sub03/sub0307.html>

2) 여성의 자궁과 난소

✓ 자궁-(2)

▶ 월경주기(자궁내막)

- 증식기
 - 난포가 성장
 - 에스트로겐 -> '자궁내막을 증식' 회복
- 배란
 - 월경 시작 14일 전
- 분비기
 - 배란 후 난포가 황체로 변화
(프로게스테론 분비)
 - 이때 체온이 평상시보다 약간 높아짐
 - 가슴이 커지고, 수분 정체로 체중이 증가
- 출혈기 : 멘스(생리)가 나오는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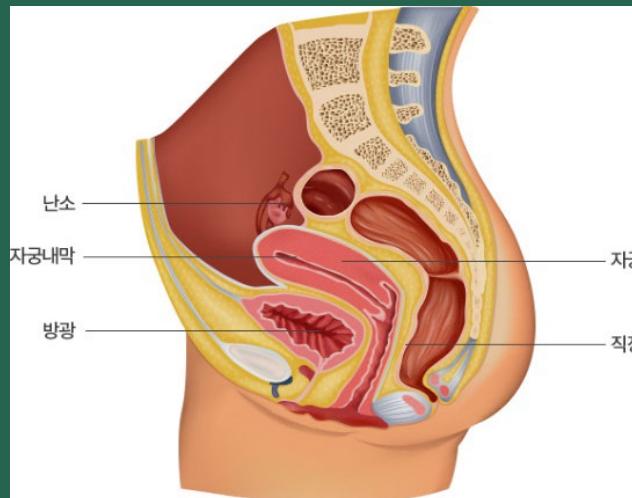


2) 여성의 자궁과 난소

자궁-(3)

▶ 자궁외 임신

- ‘수정란’ 자궁내막이외의 장소에 착상하는것(난관, 복강, 난소, 자궁경부 등)
- 심한 출혈을 일으킴
- 원인: 난관염(가장 많음), 선천성 기형, 종양, 월경역류 난관점막의 수정란 수용성 증대, 피임용 자궁내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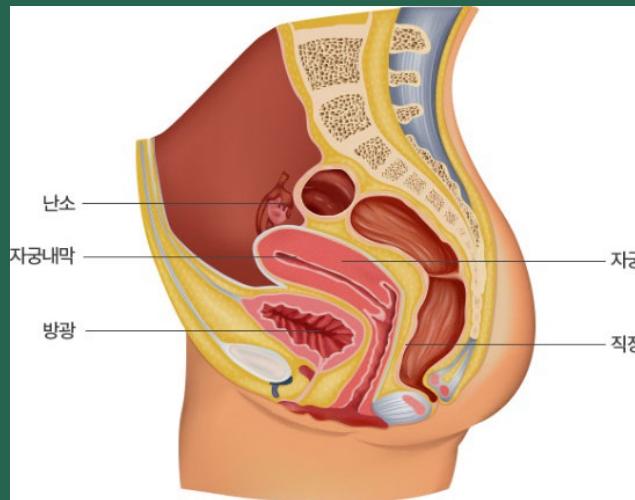
[출처] <http://www.ellemedi.co.kr/sub/sub03/sub0307.html>

2) 여성의 자궁과 난소

자궁-(4)

▶ 자궁의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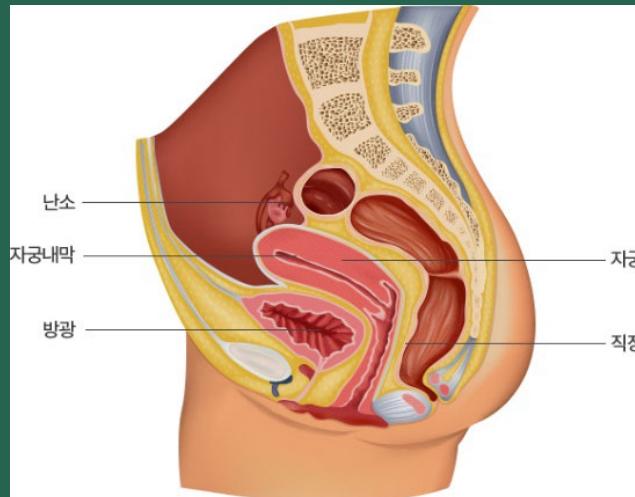
- 방광과 직장 사이에서 '전굴'되어 있는 것이 정상
- 방광에 오줌이 충만되거나 직장에 대변이 차 있을 때 등에는 다소간 뒤로 치우쳐 가 있을 수도 있음
- 또한 성교 시 흥분기나 오르가즘기에는 '전굴되었던 자궁이 일어나 질과 직각'을 이룸
→ 질이 정액을 저장할 수 있도록 큰 장소를 제공



2) 여성의 자궁과 난소

질-(1)

- ▶ 외음부의 질구에서 경사를 이루며 후방으로 높아져 가는 점막성, 근육성 기관
- ▶ 10-12cm의 관모양
- ▶ '질의 바깥쪽 1/3'은 예민한 말초신경이 많아 쾌감을 느끼게 함



[출처] <http://www.ellemedi.co.kr/sub/sub03/sub0307.html>

2) 여성의 자궁과 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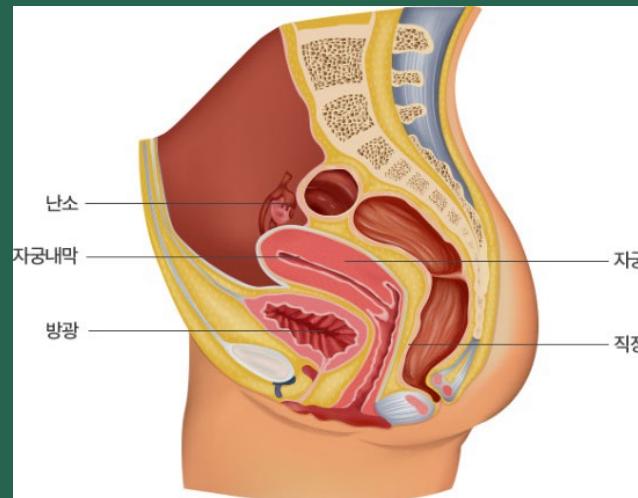
질-(2)

▶ 최하단부 : 강력한 골반결합, 근육계에 속함.

- ‘괄약근’처럼 기능 할 수 있음.
- 질경련 : 성교시 반복, 질 근육계의 ‘근육방위’로 생각

▶ 자궁에서 나오는 월경혈액을 배출하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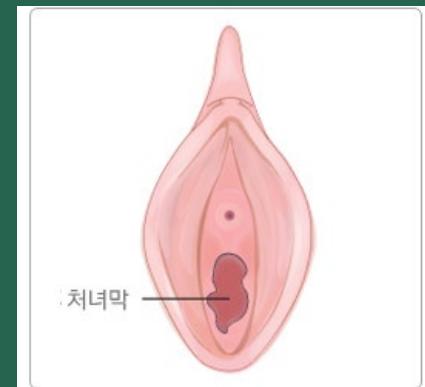
▶ 분만할 때는 아기가 통과하는 길



2) 여성의 자궁과 난소

처녀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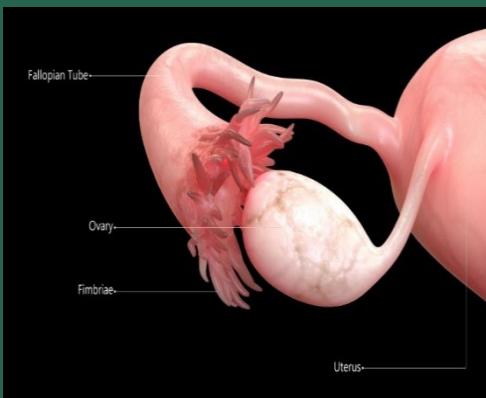
- ▶ 질구의 일부분을, 부분적으로 막고 있는 피부막
- ▶ 크기와 모양, 두께 등은 개인에 따라 천차만별
- ▶ 처녀막의 유무나 파열이 성체험과는 크게 상관이 없음
- ▶ 처녀막에 염증이 있다거나 기타 질환이 있으면, 여성으로서의 성교는 매우 고통스러움
- 통증이 무서워, 돌연한 페니스삽입을 방어하기 위한 반사작용으로서, 질이 수축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음



2) 여성의 자궁과 난소

난자-(1)

- ▶ 여자의 생식세포, 즉 '아기를 만들 수 있는 세포'
- ▶ 원시난포: 매월 각각 '좌우의 난소'에서 번갈아가며 발육됨
 - 발육된 난포(follicle)
 - 상피 및 난포막에 싸여있음
 - 난포막은 그 안에 '난포액'을 분비
 - 난포막의 내층의 세포는 '에스트로겐' 분비
 - 포상난포가 발육해서 1.5-1.8mm로 '성숙'하면 난소의 표면이 돌출되고 정점에서 파괴(뚫고나옴)
 - 난포액과 함께 골반강내에 배출(배란)



2) 여성의 자궁과 난소

난자-(2)

▶ 직경 : 약 0.2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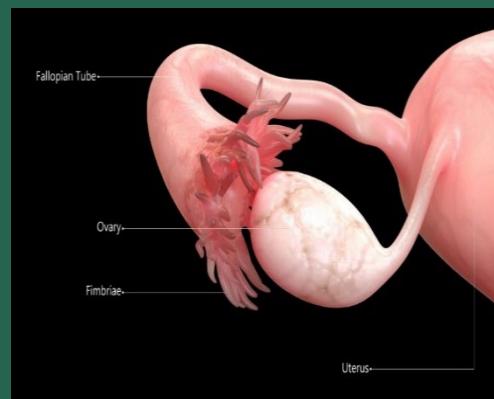
- 정자에 비해 크기가 큼

▶ 난자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음

- 난자의 이동은 '난관벽에 있는 섬모에 의한 섬모운동을 통하여 자궁쪽으로 이동'

▶ 정자에 비해 배출되는 수가 적음

- -> 여자가 월경을 시작하면서부터 폐경기까지
- '평생 배란하는 난자의 수'는 약 400개 뿐



2. 해부학(1)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3. 해부학(2)

1) 난자의 형성 과정

1) 난자의 형성 과정

▶ 1차 난모세포 - 1차 감수분열(염색체수가 반감)

- 한 개의 2차 난모세포 + 한 개의 제 1극체

▶ 2차 난모세포 - 2차 감수분열(염색체수 유지)

- 한 개의 난자 + 한 개의 제 2극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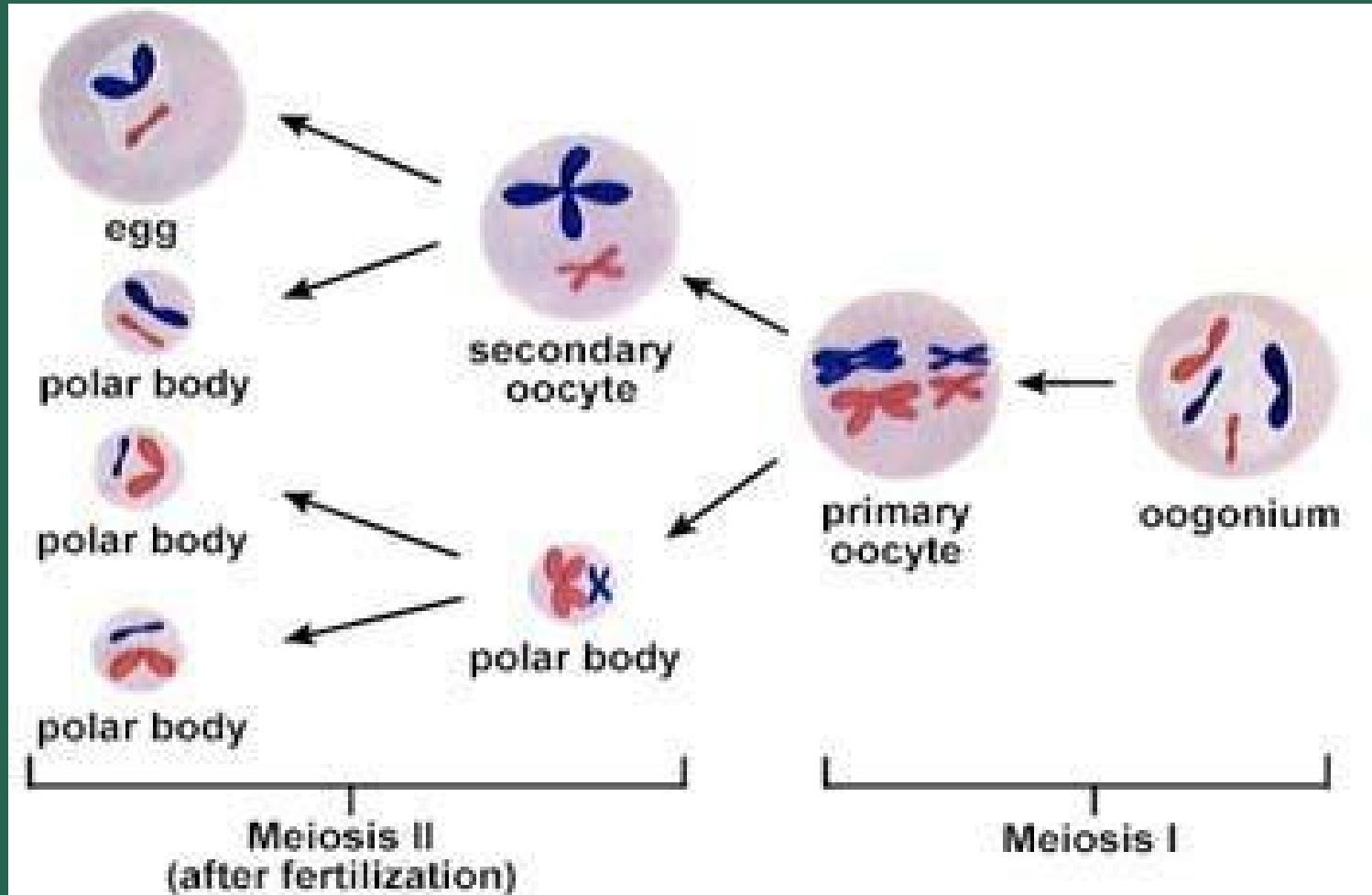
▶ 제 1극체 - 2차 감수분열

- 두 개의 제 2극체(난자로는 성장못함)

1) 난자의 형성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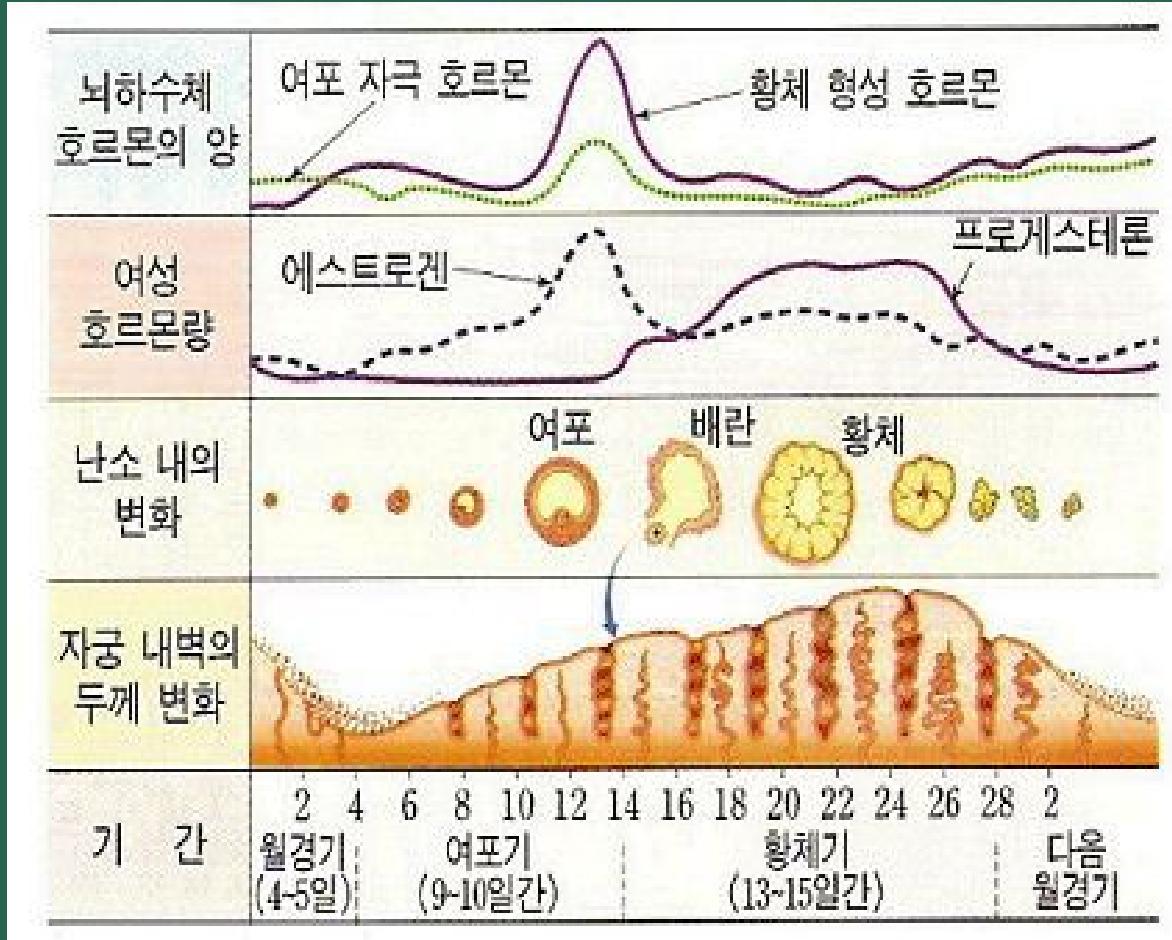
- ▶ 결국 한 개의 1차 '난원세포(oogonium)'에서만 염색체수가 23개인 오직 '한 개의 난자(egg)'가 형성
- ▶ 극체(polar body)는 얼마 후 없어짐
- ▶ 난자가 성숙하면 난소의 표면에 돌출
 - 정점에서 파고
 - 난자는 난포액과 함께 골반강 내에 배출(배란)
 - 난자는 스스로 운동성이 없기 때문에 난관벽에 있는 섬모에 의한 '섬모운동'을 통하여 자궁쪽으로 이동

1) 난자의 형성 과정



1) 난자의 형성 과정

✓ 난소주기



[출처]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ane101116&logNo=220543676981&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m%2F>

1) 난자의 형성 과정

난소

- ▶ 난소는 '여성의 생식선'으로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소량의 안드로겐 생산
- ▶ 수질: 결합조직성 지질 + 꼬불꼬불한 나선동맥으로 구성
- ▶ 피질: 각종 난자형성세포 + 난포세포로 구성된 난포로 이루어짐
- ▶ 한 달에 한 번 꼴로, 성숙난자에서 배란된 난자가 복강을 거쳐 난관채를 통해 난소속으로 들어감
- ▶ '일정한 생리주기'는
 - 사춘기가 되면서 난소에서 분비되는 '여성호르몬', 뇌하수체 전엽에서 '성선자극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

1) 난자의 형성 과정

유선자극호르몬(Prolactin)

- ▶ 최유호르몬, 황체자극호르몬, 유즙분비자극호르몬, 유선발육호르몬
- ▶ 기능 : 1) 유선의 발육, 2) 유즙분비, 3) 황체자극, 4) 전립선과 정낭의 발육촉진
- ▶ 시상하부에서 분비되는 '프로락틴 방출인자'와 '프로락틴방출 억제인자' 등에 의해 조절

1) 난자의 형성 과정

프로게스테론

- ▶ 월경주기의 **후반부**를 조절하는 기능 : 주된 기능
- ▶ 기능: 1) 유방발육에 영향, 2) 임신 유지, 3) 유선세포의 발육 촉진
- ▶ 임신이 유지
 - 아기가 들어있는 자궁이 운동(수축)하지 않도록 억제시켜서 자궁을 안정시킴
 - 그러므로 프로게스테론 분비가 부족하면
→ 자궁이 안정되지 못해서 유산이 되거나 조산

1) 난자의 형성 과정

프로게스테론

- ▶ 뇌하수체 전엽에 있는 '황체형성 호르몬과
'황체자극호르몬'에 의해 조절
- ▶ 스테로이드계 호르몬, 여성호르몬

1) 난자의 형성 과정

에스트로겐

- ▶ 여성호르몬, 발정호르몬, 자성호르몬, 난포호르몬
- ▶ 여성의 생식기관을 발육 시키는 '성호르몬'
- ▶ 월경의 주기 '전반부'를 조절
- ▶ 질의 수소이온농도를 중화
- ▶ 정자의 이동을 도움
- ▶ 여자 몸의 '지방분포'와 '유방발육'을 촉진
- ▶ 난소 난포, 태반, 부신피질(소량), 정소(소량)에서 분비

1) 난자의 형성 과정

옥시토신

- ▶ '뇌하수체후엽'에서 분비되는 신경성 뇌하수체호르몬
- ▶ '자궁수축'
- ▶ 신경성 내분비반사
 - 아기가 젖꼭지 자극 → 시상하부에 전달
→ 옥시토신을 분비 → 유선의 근상피세포 자극
→ '유즙 분비'

1) 난자의 형성 과정

✓ 월경

- ▶ 24-35일간의 비교적 규칙적인 간격으로, 난자의 퇴화로 인해 자궁내막의 상피가 파괴되어 탈락됨으로써, 출혈이 배출되는 것
- ▶ 증식기
 - 난자가 난소에서 자궁으로 이동
 - 자궁점막에는 무수한 세포분열이 일어나고 점막이 두터워짐(약 7-10일)
- ▶ 분비기
 - '배란'을 경계로 '황체형성'에 대응하여 자궁점막에는 혈관의 증식에 의한 출혈과 선조직의 증식에 의한 분비가 일어나는 시기(약 12-24일)
- ▶ 월경(5일간)
 - 수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황체의 흡수 및 퇴행에 수반하여, 두꺼워졌던 자궁점막의 표층은 파괴되고, 떨어져나가 출혈을 수반하고 질을 통하여 배출
 - 신체적 변화와 함께, 정서적인 변화도 일어남

1) 난자의 형성 과정

배란

- ▶ 난소에서 난자가 배출되는 현상
- ▶ 28일 간격으로 양측 난소에서 교대로 일어남
(월경주기의 중간기, 약 14일)
- ▶ 뇌하수체 전엽 - 난포자극 호르몬 분비
 - 난포 발달 & 난모세포 성숙
 - 에스트로겐 분비
 - 황체형성호르몬 분비
 - 배란
- ▶ 기초체온의 변화
 - 배란 전까지 36.5°C 유지 -> 배란이 되면서 기초체온이 $0.3\text{-}0.5^{\circ}\text{C}$ 가량 상승

3. 해부학(2)

3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